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2년 7월 17일



연중 제16주일 농민 주일

루카 10,38-42

시작 기도

성호경, 시작 성가, 출석 확인과 인사 나눔

주님 초대하기

“기도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십시오.”

말씀 듣기

“루카 복음서 10장을 펴 주십시오.”

“모두 함께 루카 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 찾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음 물음의 답을 찾아봅시다.”

- ① ()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을 듣고 있었다.(39절)
- ② 그러나 ()는 갖가지 ()드는 일로 분주하였다.(40절)
- ③ “필요한 것은 ()뿐이다. 마리아는 ()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42절)

복음 이해하기 >

① 마르타와 마리아의 행동 비교

집에 모신 예수님을 대하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행동이 대조를 이룹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말씀을 배우는 일이 여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발치에 앉는 행동도 유대인 남자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당시 유대교 관행을 거스르는 마리아의 행동을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오리게네스(185-254년경) 이래 많은 교부가 이 말씀을 활동생활보다 관상생활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마르타를 사도직에 종사하는 수도자의 모습으로, 마리아를 관상하는 수도자의 모습으로 풀이하였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② 7월 29일 '성녀 마르타, 성녀 마리아, 성 라자로 기념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결정에 따라 2021년부터 7월 29일은 '성녀 마르타, 성녀 마리아, 성 라자로 기념일'로 로마 보편 전례력에 수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 보편 전례력에는 성녀 마르타 기념일만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교황청 경신성사성의 교령은 "라틴 교회의 전승에서 마리아의 신원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 나타나셨던 막달레나인지, 마르타의 동생인지,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던 죄 많은 여자인지 불확실했다. 따라서 로마 보편 전례력은 7월 29일을 마르타의 기념일만 수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오늘날 「로마 순교록」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7월 29일과 같은 날 마리아와 라자로도 기념하는 근거를 입증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았다. 또한 일부 특정 (지역) 전례력은 3남매를 이미 같은 날 함께 기념해왔다."라고 설명합니다.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중 한가지를 소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① 신앙인으로서 나는 마르타와 마리아 중 누구와 닮아있습니까?

.....
.....
.....
.....
.....
.....
.....



②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
.....
.....
.....



함께 하는 복음 묵상 >

“어느 한 분이 복음 묵상을 위한 도움 글을 읽어 주십시오.”

마르타의 입장에서는 다소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던 마리아에게 좋은 몫을 택했다고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의 수고를 모르셨을리 만무합니다. 하지만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더 좋은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성실히 미사에 참례하고, 기도를 바치며, 여러 신심활동과 봉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안에서 바쁘고 복잡한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 지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미사를 거르지 않고 봉헌하는 것도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배려하고 나누는 것이 옳은 것임을 알면서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상의 기준을 따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더 맞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이자 따라야 할 유일한 기준임을 믿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필요한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고 계심을 경험하고 깨닫는다면 저절로 더 충실한 믿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고 더불어 그 신앙은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의 삶과 신앙생활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분주한 일상 안에서도 자주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의 은총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화 묵상 >



<안 베르메르,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신 그리스도, 1655>

누가 마르타와 마리아인지 찾아봅시다. 예수님의 시선과 동작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빛과 어두움의 대조, 특징적인 색깔을 발견해봅시다.

예수님의 시선은 빵을 들고 있는 마르타를 향해 있지만, 오른손은 발치에 앉아 턱을 괴고 있는 마리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르타와 마리아 모두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머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따뜻한 정서가 가득한 친밀한 가족의 모습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화의 하단부의 주된 색채는 초록색인데, 초록색은 믿음과 신앙의 색이며 곧 어둠을 극복할 것이라는 희망의 색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애정어린 시선과 손짓, 그를 향한 신앙인의 참다운 태도를 성찰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실천 >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을 협의하고 다짐해봅시다.”

- ① ‘성구 정하기’ - “한 주(달) 동안 새기며 살아갈 ‘성경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정해 봅시다.”

_____장_____절 / _____

- ② “한 주(달) 동안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일을 정해봅시다.”



- ③ 본당 및 소공동체 소식 전달, 건의 사항, 다음 모임 일시와 장소 선정

마침 성가와 기도 >

“말씀을 통해 새롭게 가르치고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마침 성가(8쪽)를 부르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새로운 선교 열정을 위한 기도’(뒤표지)를 바칩시다.”(자유 기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